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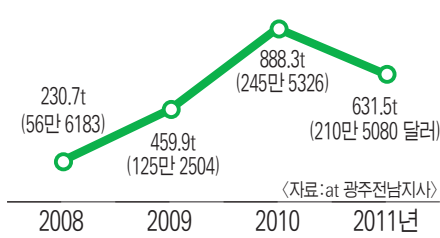
<4부> FTA시대 수출로 활로 찾기

② 멜론

일본·대만 수출 42%가 전남산... 지역경제 '효자'



연도별 광주·전남 멜론 수출 물량·금액



우리나라 멜론재배 역사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가을 이영길(나주시 석현동)씨가 첫 도입을 했으며, 이는 농가로서는 국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재배기술의 미숙과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재배면적이 늘지 않다가 1986년 아시아 안 개입,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네트형) 멜론 재배면적이 일파 재배면적이 확대됐다. 전국 멜론 재배면적은 1986년 5ha(생산량 114t), 1988년 66ha(생산량 1456t)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0년에는 1706ha(생산량 4만1796t)으로 경증 뛰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은 554ha로 전국 재배면적의 32.5%, 전체 생산량의 40.3%(1만6835t)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담양(221ha)·나주(166ha)·곡성(140ha) 등지에서 많이 재

담양·나주·곡성 등 국산품종 친환경 재배로 인기

도내 생산 5%만 수출... 日 편중 시장 다변화 '과제'

배하고 있다.

<2010년 전남 멜론 858t 수출>=A(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멜론 수출실적은 지난 2010년 2027t(금액 468만9000달러)으로 일본·대만 등지에 주로 수출됐다. 이 중 전남은 858t(240만2000달러)으로 전체 수출량의 42.3%를 점유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수출되는 멜론은 도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

이에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일본에 집중된 수출시장 다변화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농가들은 '내수가 안되면 수출이 흔들린다'며 소비시장 확대 등 내수시장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가플·홍풍 등 수출선 다변화 역시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돼 쉽지 않은 과제.

수출물량을 바이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

기 위해서는 일정량 겨울 작기 재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겨울작기에 생육온도 2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은 농가들의 큰 고민거리이다. 면세유를 이용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난방비가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멜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위주에서 탈피해 품질향상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멜론이 '고급 멜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내수시장에서는 크기와 맛(당도)을 중시하지만 일본시장에서는 당도뿐만 아니라 네트 색깔·밀도, 외형 등을 섬세하게 따지는 부연 설명이다. 내수시장은 2kg 내외, 일본시장은 1.5~1.7kg 크기를 선호한다.

<국내 개발 멜론품종 재배확대=도내에서 재배되는 멜론 품종은 엘리트·소나타·슈

퍼 VIP 등 30여종. 대부분 외국 품종이어서 종자 한 톨(粒)당 로열티 포함, 수백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일본 등지에서 육성된 품종인 까담에 병에 약하고 재배가 까다롭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지난 1997년부터 새로운 멜론 품종개발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09년 '얼스그랑프리', 2010년 '얼스 멜리'·'얼스 보배'를 잇따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스그랑프리'는 흰가루병에 강하고 당도와 맛이 좋으며 과육(황록색)이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품종이지만 흰가루병에 강하고 친환경재배에 적합해 도내 전체 재배면적의 1%(5ha)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7월초 '얼스그랑프리' 품평회를 가진 후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브랜드 단지를 조성해 재배면적을 3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원예연구소 조명수(55) 연구사는 "우리나라 멜론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로 멜론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나주 세지농협 '세론이 멜론'

농가는 생산 판매는 농협... 겨울멜론 80% 점유

나주 세지농민들은 1997년께 점진적으로 이뤄진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등을 고려해 멜론 재배에 뛰어들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농가들은 전국 최고 품질의 멜론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론이 멜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한다. 전국 멜론 시장의 22%를 차지하며, 겨울철 멜론시장은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지멜론의 경쟁력은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농가의 노력과 함께 탄탄한 조직운영에서 비롯된다. 세지농협과 세지멜론 연합회는 과일생산과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생산농가들의 모종 식재 날짜를 고르게 판매할은 물론 수확전에도 당도를 측정해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수확할 수 있다. 재배농가 대부분이 친환경(저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선

별장도 GAP시설 인증을 취득했다.

세지멜론은 101농가가 62만여㎡에서 연간 3000여t의 멜론을 생산해 120억~13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15~20%인 매년 109~440t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인 '가바사시'는 전량 세지멜론을 후식으로 내놓고 있다.

농가들은 연간 2기작이나 3기작으로 멜론을 생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연중 출하하고 있다.

이성호(62) 세지농협 조합장은 멜론사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GAP농가 인증사업 추진을 통한 멜론의 안정적 확보 및 소비자 요구 부응 ▲지속적인 시험포 재배를 통한 우수한 품종개발 ▲출하처의 다양화와 학교급식 사업의 육성 ▲멜론 수출선

다변화(홍풍·대만·심가플) 등을 꼽았다. 특히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하우스 고질 투자물중 하나인 '장기성 필름'에 대한 정부보조가 절실하다. 현재는 시설하우스용 비닐이 소모성 자재로 분류돼 있어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조합장은 "기존 시설하우스 비닐은 1~2년마다 교체해야 하지만 '장기성 필름'은 5~7년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폭설에 강하다"면서 "햇빛 투과율이 좋아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등 농가 생산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성호 조합장

나주시 세지면 세지농협 멜론 선과장. 생산농가에서 수매해온 멜론은 당도 측정기를 거쳐 13브릭스(Bx) 이상이어야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나주=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적임
원만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팀 직영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큰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팔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틀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등록 및 이미지 도용시 개발비용이 법적 고액조치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속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완벽해진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번거워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밤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달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순용-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덤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